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지역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것입니다.

Hannam University 오정동캠퍼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대덕밸리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www.hannam.ac.kr*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HANNAM DREAM

HANNAM 2024 한남대 STORY NOV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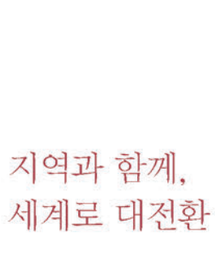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4 Winter* **Vol. 40**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4 Winter ● **Vol. 40**



붉게 물든 담쟁이 넝쿨로
가을을 맞이하는 한남대학교 교내카페
김기수기념관(Cafe History)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승철
편집인 장수익
글 · 사진 고상범, 김민영,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한남대 핫이슈

04 전국 최초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혁신파크'
12월 완공

08 캠퍼스혁신파크 단장 인터뷰
"한남대 미래 방향은?"

10 각종 국책사업 선정,
지역사회 역할 기대감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 차세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STORY 2
한남대 사람들

14 국내 최초 여성 소방감
이오숙 동문

16 한남대와의 영화 같은 인연
송이산업 박광열 대표

18 에미레이트 정인웅 기장과
한남타임즈 후배들과의
온라인 만남

20 빵의 도시 대전을 빛낸
몽심 이지영 대표

22 2024 자랑스러운 한남인
선정

STORY 3
한남대 소식

24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학생들,
미국 포드자동차 프로젝트
최종 '우승' 영예

25 한류 홍보대사 한남대
한국학 프로그램(KSSP) '인기'

26 한남대 축구부, 또 한편의 '역사'
(대학축구 최초로 전국대회 3년 연속 우승,
추계축구연맹전 2년 연속 우승)

27 창업마켓 육성기업 '다함께 차차茶'
해외 시장서도 통했다.

28 2024 H&U 전국 청소년
찬양축제 개최

29 아동복지학과 양효경 학생,
화재현장서 기지 발휘한
'용감한 시민'

30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
세계적 국제 디자인 공모전 휩쓸어

31 '서울의 봄' 촬영장,
한남대 사범대학(화이트기념관)
리모델링







전국 최초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혁신파크' 12월 완공

'대학교 내에 첨단산업단지는 어떤 모습일까?'

오는 12월 한남대학교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전국 최초로 새롭게 시도되는 모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공사공정 98%를 마무리하고 11월 8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 한남대캠퍼스 혁신파크에 지역의 기대감이 크다. 지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 지역중심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다.



1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무엇인가?

대학의 유휴 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전국 3개 대학
(한남대,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을
1차 선정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각 2개 대학을 추가로 선발해 전국에서
총 9개 대학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한남대가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정부의 지원 아래 지자체(대전시 · 대덕구),
대학,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며,
50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기업입주공간,
창업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복합 개발을 통해 정부의 산학연협력산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시켜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98%의 공사공정 마무리하고 11월 8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전국 최초로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산업단지 모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혁신파크 특장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본격적인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 중이다.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업무공간과
개방형 혁신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캠퍼스혁신파크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20~80% 수준이다.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임대료는
3.3㎡당 평균 2만7000원 ~ 3만1000원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보증금은 별도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 85.38㎡의 창업기업은
월 임대료 31만8500원, 임대보증금 414만500원 수준이다.



3 캠퍼스혁신파크 입주 업종은 어떤 분야?

오는 12월 문을 여는 건물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동이다.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은 22,253㎡,
건축면적은 4,400㎡규모다.
캠퍼스혁신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 ▲ 바이오 화학 분야
- ▲ ICT
- ▲ 기계, 금속
- ▲ 지식서비스 분야 등이며



세부 산업분류 분야로
특화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특화분야	대분류	중분류 기준
바이오 · 화학	C (제조업)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1070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ICT	C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제조업(C28)
	J (정보통신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통신업(J63) 추가
기계 · 금속	C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지식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이곳에는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기관의
입주를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한남대가 보유한
연구인프라와 전문인력 등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연구개발지원
(원천기술 및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등 R&D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술고도화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인증 및 테스트
(표준 · 인증획득, 기술테스트 등 사업화지원),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3D모델링과 프로토타입 제작 등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4 비지니스에 최적화된 캠퍼스혁신파크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는
예비창업자들의 공동입주공간 1개와
88실의 기업 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예정이다.

기업지원 및 공용공간으로
메이커스페이스와 미디어룸, 세미나실,
회의실,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건물 주변으로는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기업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층의 높이가 4.2m이상 구축됐으며,
다채로운 휴게 시설을 구성했다.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카페테리아와 카페 등 상가가 입점하며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루버와 아트리움, 옥상정원 등을 설치해
친환경적 건축을 진행했으며,
입주기업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5 입주기업 대상 멤버십 제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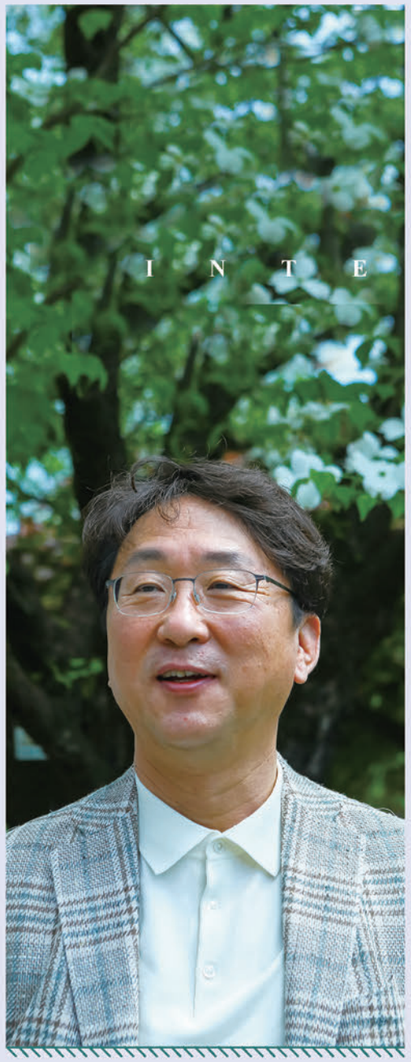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한다.
업체마다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기업육성 플랫폼을 구축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데모데이 등
역량강화 및 직접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 IR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창업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연계 멘토링과
전문 분야별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멘토링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창업실전교육과 시제품 제작, 투자+IP+사업화
삼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셜벤처 등 특화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산학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며
조달납품 기업 인증 지원, 4차산업혁명 특화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R&D, 장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수요기반의 기자재와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야간 연속장비 가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비활용을 통한 산학연구과제를 기획할 수 있고
유관기관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기술수요기반의 각종 장비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체계지원도 나선다.
Death Valley 극복 금융 포트폴리오 지원을 비롯한
금융 리스크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에서 보증, 대출, 투자까지 단계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계와 재무, 세무 진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단 원구환 단장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단장
원구환 단장 인터뷰

I N T E R V I E W

〈편집자주〉
캠퍼스혁신파크가 한남대학교에 들어서면 대학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생길 것인가? 지방대 위기 속에서 대학 발전의 주춧돌로 삼아 앞으로 백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캠퍼스혁신파크 원구환 단장에게 앞으로의 방향과 한남대와의 시너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한남대학교 전국 최초로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완공시기는 언제이고 앞으로 개관일정이 어떻게 되나?

한남대학교는 2019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전국 대학 최초로 2022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학연혁신허브를 건립하고 있다. 산학연혁신허브는 A동 7층과 B동 4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축면적 4,400㎡, 연면적 22,253㎡의 지식산업센터로 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산학 공동 연구개발 및 경영 활동을 토대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과 산업혁신을 견인할 예정이다. 준공에 앞서 11월 8일부터 입주공고를 시행하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심사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본격 기업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Q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사례가 없다.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방향성은 무엇인가?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일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학 공간 일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각 사회주체들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각종 교육 · 연구 인프라 등 대학의 인적 · 물적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캠퍼스혁신파크에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Q 한남대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캠퍼스혁신파크와 한남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한남대학교는 전국 최초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산업 혁신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캠퍼스혁신파크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벤처육성과 산학연협력의 명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기업은 대학의 보유기술과 인프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는 창업 및 벤처 육성의 산실로 첨단 ICBT 기술 허브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시설과 혁신 제조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 · 제조, 전후방산업 연결, 투자유치,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Q 입주기업 모집이 관건인데 캠퍼스혁신파크를 자랑한다면?

산학연혁신허브는 명품 건축을 지향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속에 다양한 교류 공간, 창의적 협업 공간, 개방형 업무공간을 풍부하게 구성했다. 30개실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흄후드를 구축했으며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랩, 빅스텝라이브러리, 세미나실 등 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 경영 · 교육 ·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공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는 교육부에서는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올해부터 향후 5년간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R&D와 네트워크 지원, 경영진단 및 멘토링, 고용 연계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입주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Q 한남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가?

한남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비전 하에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을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다.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창업교육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창업연합대학 구축과 지역특화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이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기업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 선정, 지역사회 역할 기대감

한남대학교가 2024학년도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지역경제, 지역산업과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들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남대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사업을 비롯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차세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 등에 선정돼 지역에서의 역할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사업 '첨단소재 · 나노융합분야'

한남대는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첨단소재 · 나노융합분야' 컨소시엄에 지난 5월 선정됐다.

COSS사업은 첨단 산업분야로 진출을 희망하지만 전공이 달라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첨단소재 · 나노융합분야에 한남대 · 중앙대(주관) · 강원대 · 국립금오공과대 · 인하공업전문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선정된 연합마다 연간 102억 원씩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총 4년(2024~2027)간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소재 · 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내 각 대학은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게 된다. 대학들은 첨단신소재전공과 나노융합전공, 적층제조전공의 3개 핵심 전공을 구성해 운영하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교과과정을 수립해 강좌를 개방한다. 이공계 대학생은 물론 비 이공계 학생, 일반인,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이다.

1.
첨단소재 · 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개소식 및
사업설명회 기념사진촬영

2.
2024 첨단소재 나노융합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

3.
한남대학교 전경





한남대는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최소 단위 실무형 교육과정, 학점 당 학위제)을 개설한 이후 연계 · 융합형 126개 과정을 개설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한남대 마이크로디그리는 지난해 교육부가 선정한 분야 간 융복합 교육과정 중 주요 운용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 소속 9개국 69개 대학에 수출한 바 있다. 한남대는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롯한 컨소시엄 발대식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한남대학 내에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발을 알렸다.

2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역분야'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역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HUSS'는 대학 내 학과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 · 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 운영하고, 물적 ·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사제도 등을 개편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분야와 사회구조, 글로벌 · 공생 분야 연합체 등 3개 분야가 선정됐으며,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3년간(2024~2026)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한남대는 '지역분야'에 선정됐으며, 주관대학은 전주대로 한남대를 비롯한 경북대, 동국대, 한림대가 참여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남대는 '로컬시너지 융합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과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 지역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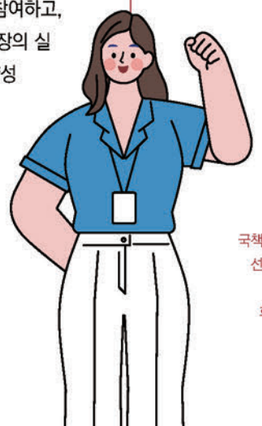




4.
지난 6월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지역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한남대는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로컬커뮤니티 전문가과정)를 구성하게 되며, 국어국문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6개 학과가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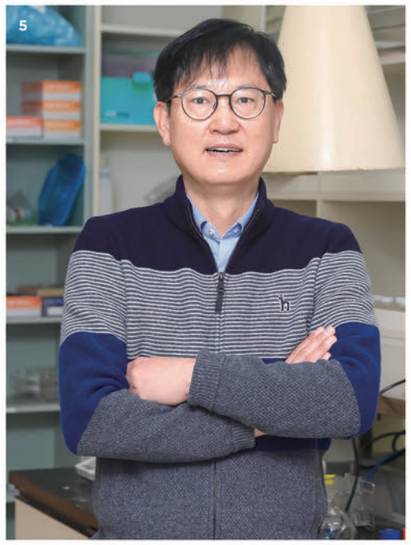
컨소시엄 대학들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기본 모듈로 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조사해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융합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한남대학교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연구책임자 화학과 임춘우 교수)의 국책과제 참여기관으로 6월 선정됐다.



5.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의
국책과제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한남대학교의
연구책임자
화학과 임춘우 교수

임 교수는 전체 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관인 ㈜아스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경희대와 함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책사업 과제명은 '나노미터급 깊이 방향 분해능을 가진 OLED 소재 및 디스플레이 나노 열화 원인 규명용 이미징 질량 분석시스템 개발'이며, 임 교수는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 가운데 '중수소 치환된 OLED 물질' 관련 연구 분야로 과제에 참여한다.

임 교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OLED) 개발팀 출신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이나 올레드 TV 등에 사용되는 유기물질을 연구 · 개발 해왔다.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3D 고해상도 이미징 LDI TOF-MS개발 ▲OLED 소재 열화분석법 개발 ▲깊이방향분석 LDI TOF-MS 시제품 개발 등 세부 개발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주관기관인 ㈜아스타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2030(초기투자금 약 7조 8000억원)'의 핵심인 사우디 · 한국 산업단지(SKIV)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 중 하나다.

4

차세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한남대학교 첨단 메디컬바이오 혁신인재양성 사업단(단장 이진아 교수)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24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구축, 산업특화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체계 구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남대는 생명나노과학대학의 바이오제약공학과, 생명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를 비롯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등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남대는 첨단메디컬바이오 융합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연계 산학프로젝트운영, 현장실습과 인턴십 운영을 통해 첨단 바이오 맞춤형 실무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메디컬 바이오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바이오창업원과 연계해 산업성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연구장비,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첨단바이오융합기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공동연구개발과 추진을 통해 교육 · 연구 · 취업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5개 대학 선정 이후 올해는 한남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3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선정평가위원회는 한남대 사업계획에 대해 대전지역 기반의 산업, 기업, 연구, 대학 기반의 다양한 인력 수요공급 환경을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6.
한남대학교 첨단 메디컬바이오 혁신인재양성 사업단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24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





interview

국내 최초 여성 소방감 이오숙 동문 (행정8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여성 소방감'
'첫 여성 소방청 대변인'
'대전충남 최초의 여성 119 안전센터장'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85학번 동문인 이오숙 소방감은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깨뜨렸다. 무엇이든 처음은 어렵다. 공무원 조직 중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 소방분야에서의 최초는 무엇보다 두려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이 취임했다. 소방감은 일반공무원은 이사관(2급), 경찰로 치면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이며, 전국 소방 조직 내 소방감 인원은 소방청에 6명,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10명을 합쳐 총 16명에 불과한 고위직이다.

그의 모교인 한남대학교에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말에 이오숙 동문은 모든 언론 인터뷰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모교 홍보팀을 초대했다. 한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캠퍼스 커플로 현재의 남편과 인연을 찾았고, 현재까지 동문회 활동을 이어가며 한남대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오숙 소방감

다음은 이오숙 소방감과 일문 일답.



Q 1988년 12월부터 35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방 업무를 해왔는데, 지난 35년을 회고해 보면 소회가 어떠한가?

A 처음 대전소방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 2개 소방서에 2명씩 모두 4명의 여성소방관이 근무했을 만큼 여성소방관은 극소수였다. 민원업무 또는 홍보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전체 소방관의 10%가 넘는 여성소방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양적, 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음을 느낀다. 대전소방에서 19년을 근무한 뒤 당시 소방방재청(서울)으로 옮겼고, 국민안전처, 대구소방, 중앙소방학교, 소방청, 강원소방학교장, 소방청, 전북소방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기때문에 35년여 근무기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졌다.



Q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이 있으시면 소개해달라.

A 업적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대전소방에서 대전충남 첫 여성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 당시, TJB TV '생방송 오늘' 프로그램의 '출동119가 간다' 코너를 6개월 여 동안 진행했다. 소방본부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 2년 동안 기획, 시나리오 작성, 아나운서까지 담당한 경험이 있다.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쉽고 편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소방청 근무당시에는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업무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해 119구조구급국 신설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1339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안내와 의료상담을 하는 센터였는데 이를 소방으로 통합했다. 이 과정이 녹록치 않았으나 소방대원들과 소통하면서 처음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2년 7개월 여동안 코로나19구급대응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했고, 감염병 재난 대응매뉴얼 및 대응지침을 제정하고 119 코로나19대응백서 발간을 통해 119구급대원들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해왔다.

Q 최초 직군에서 여성소방관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A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여성소방관은 특정업무만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남성 선배,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압박감이 컸다. 중요한 업무배치에서 선택받기 위해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항상 내게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나는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가정적으로는 주부, 아내, 엄마, 며느리 등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

Q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소방관을 꿈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A 행정학 전공자로 막연하게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때 당시 공무원이던 남자친구(지금 남편)가 소방관 채용시험 정보를 알려주면서 한번 응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권유했다. 은사이신 박원표 교수님도 소방관 직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 주저없이 시험에 응시했고 다행히 한번에 합격해 소방관이 됐다.

Q 기억에 남는 캠퍼스의 추억이나 은사님이 있나?

A 소방관 직업 선택에 확신을 주신 박원표 교수님, 늘 실력있는 학생이길 기대하셨던 박영기 교수님, 경제학과 나기영 교수님, 아승철 총장님, 석 ·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신 이은구 교수님 등 여러분이 삶의 지표가 됐다. 늘 감사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아름다운 캠퍼스가 기억이 나고 좋은 교수님들의 기억이 크다. 한남대학교는 늘 나에게 설레임을 준다.



Q 소방관을 준비하거나 공직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린다.

A 소방관과 공직자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이므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특히 소방관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마음의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후배들의 공직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선배로서 응원하고 싶다.

interview

한남대와의 영화 같은 인연 송이산업 박광열 대표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을 앞둔 박광열 대표

"한남대 덕분에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을 앞둔 ㈜송이산업 박광열 대표에게 70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남대와의 인연을 맺게 되면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고, 앞으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화산섬 제주도의 천연광물질인 '송이'를 소재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이미 해외 시장에서 K-뷰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백만불수출금자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산 송이를 소재로 마스크팩, 클렌징, 바디케어, 스킨케어, 헤어케어, 색조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송이는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점토가 1600℃ 고열에 탄 화산석인 돌숯을 지칭한다. 제주 방언으로는 '가벼운 돌'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제주에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채취가 가능하고 완제품이 아니면 반출이 금지된 천연 소재다.

박 대표의 이력은 자칫 화장품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포항제철에서 근무했던 경력 때문이다. 박 대표는 포항제철을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CD용 연마기 개발을 국내 최초로 성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지만, 특허권과 대기업과의 마찰 등의 문제로 좌절된다. 그는 대기업과 교차점이 없는 연마재인 '송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그의 노력은 10년의 시간이 걸려 송이를 제품화할 수 있었다.





1.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점토가 1600℃ 고열에 탄 화산석 돌숯인 송이를 소재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해외 시장의 K-뷰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
송이산업의 화산송이는 여러 중금속 검사를 마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화산송이 관련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
프리미엄급의 화산송이 가공을 통해 1등급 원료를 사용해 제주 원료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4.
한남대 무역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박대표는 무역학과 최장우 교수에게 학술적인 부분과 현장 실무 중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앞두고 있다.

제주의 독특한 광물질인 송이에 대해 오근호 한양대 교수의 자문을 받고 일본전역의 온천장을 찾아다니며 일본 화산석과 제주 화산석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신주쿠 대학의 비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제주 화산석은 일본에 비해 방사능이나 라돈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상품화해 수출을 시작했다. 박 대표는 제주 최초로 제주 화산송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박 대표는 "어느 날 얼굴에만 팩 하던 것을 엉덩이에 팩을 하면 안될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됐다. 그는 엉덩이 팩으로 특허를 냈고, 그의 역발상은 습하고 더운 동남아 지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백만불수출금자탑의 효자 종목이 됐다. 이미 천연화장품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였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국내에서 해외 무역과 수출 분야에 유명한 학계 인물을 찾아다녔고,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최장우 교수를 수소문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최 교수에게 학술적인 부분을 비롯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새로 개척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동안 제주에서 대전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갔는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모범생이었어요. 저의 적극적인 마음을 알았는지 교수님께서 성심껏 지도해 주셨고, 사업 확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대표는 2025년 2월 박사학위 수여를 앞두고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 정인웅 기장과 한남타임즈 후배들과의 온라인 만남

한남대학교 영자신문사인 한남타임즈 후배들과 에미레이트 항공사 정인웅 기장(영어영문89, 한남타임즈)의 특별한 온라인 만남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30일 밤 10시 30분, 한남타임즈 후배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 기장과 접속했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과 후배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영자신문편집부 44기 이지선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자신문편집부
44기 이지선 편집장



1.
공군 파일럿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정인웅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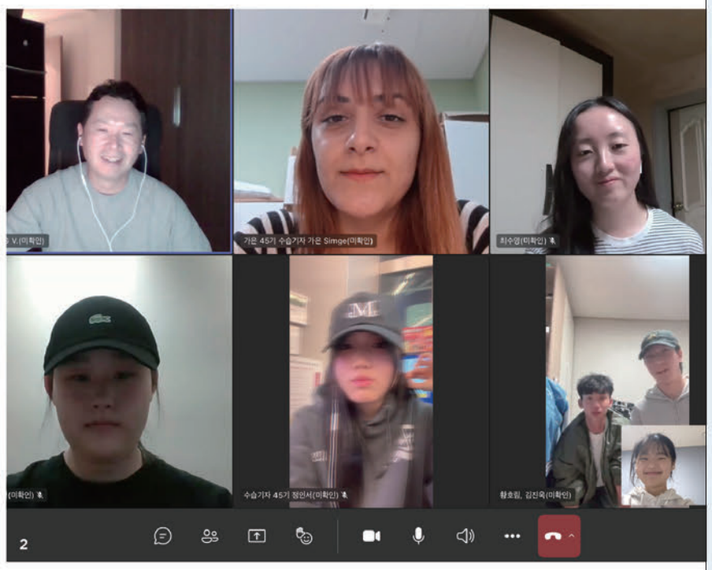
interview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웅입니다.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B777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9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고
3년 동안 한남타임즈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Q 영자신문편집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활동을 통해 얻은 것 중 현재 삶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타임즈에서 글을 쓰고, 말하고,
자신을 행동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한남타임즈 기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딘가를 가서
'대학신문사에 있던 애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남타임즈 편집장이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2.
지난 10월 30일 밤 10시 30분
에미레이트 항공사 정인웅 기장(영어영문89, 한남타임즈)과
한남대학교 영자신문사인 한남타임즈 후배들과 특별한 온라인 만남이 이뤄졌다

후배님들도 영어에 집중하고, 타이핑하고, 편집하고, 읽고,
기자, 교수, 직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대한 활용하세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인셈이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세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도구로서 영어를 통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처럼 언젠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남타임즈에서 배운 영어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3. (앞쪽 맨오른쪽)정인웅 기장의 한남대타임즈 시절(19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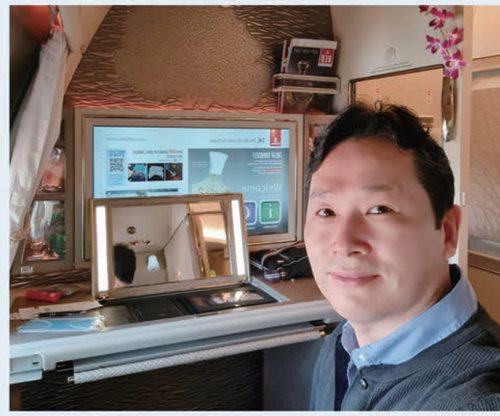
**Q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제가 타임즈에서 배운 핵심 가치에는
희생, 헌신, 훈육입니다.
희생은 제대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타임즈가 나에게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타임즈는 나에게 3년 동안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팀에 있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기장의 업무는 사고가 난 항공기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해야 하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 뒤에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는가를
묻기 전에
자신이 이 팀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Q 선배님 저서에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남들에게 묻어가라.
그러면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A 다양한 이유로 조직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으며,
그때 대세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다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꾸준히 노력하세요.
이 진취성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존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지속해서 자기 계발(특히 영어공부)을 추구하세요.
어렸을 때는 제2의 본성이 되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세요.



※ 정인웅 기장은?
1993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후보 조종 장교로 임관해 10년간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 의무복무했다. 군생활동안 대장표창 2회와 미공군대학교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에 비사관 학교 출신으로 최초 선발돼 한국 군 최초 우수졸업생으로 선발됐다. 정 기장은 전역후 대한항공에 입사해 민항기를 조종했으며, 이후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이직해 보잉777기장으로 근무 중이다. 책 〈어쩌다 파일럿〉과 〈언제나 파일럿〉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Daejeon, the city of bread

빵의 도시 대전을 빛낸 몽심 이지영 대표

"한남대
구성원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몽심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대전 빵축제 선호도 1위(2회 연속)를 차지한
'몽심' 이지영(미술교육과 14학번) 대표는 한남대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마련해준
4평 남짓의 창업존 매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대전지역 내에
3개의 지점(오정점, 도안점, 대흥점)을 오픈하고
가게당 월매출 1억3000만원을 자랑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지영 대표와 같은 학과 출신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황미정 공동
대표는 동업으로 예쁘고 맛도 좋은 빵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몽심'을 기획했다.

미술교육을 전공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던 두 사람은
이지영 대표의 사업 아이디어와 제빵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황미정 대표의
기술이 만나 환상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서양화 전공자들이 창업을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젊음으로 도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019년 처음 몽심을 열었을 때 하루 6만원 매출이 전부였다. 방학 중이었고
유동인구가 적어 20개 남짓 팔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여겼다.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개발에 매진했다.
그의 4평 매장은 밤이고 낮이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종종 빵 일부를 한남대 도서관에서
동료, 후배들에게 무료 나눔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학생들이
불이 켜져 있는 몽심 가게를 보며 오히려 힘내라며
메시지를 적어서 편지를 주기도 했어요.
간식이며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했고요.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한남대 선후배님들 덕분에 버텼어요"

그의 노력은 SNS를 타고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으며,
예술가가 디자인한 예쁜 빵으로 명성을 얻었다.
코로나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
몽심은 거꾸로 학생들이 줄지어 빵을 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구운 과자와 케이크 등이 주요 품목으로
너무 예쁜 디자인과 훌륭한 맛의 제품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몽심은 2022년
대전시가 주최한 대전빵축제에서
본격적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빵집인
성심당 부스 옆자리에 부스를 제안했다.
다른 빵집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두려워했던 자리를 이 대표는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 대표는
"몽심은 당시 한남대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성심당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니
성심당 옆에서 몽심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빵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몽심은 성심당을 제치고
기억에 남는 빵집 1위를 차지한다.
14만명이 방문해 전국을 놀라게 했던
2024년 빵축제에서도 몽심은
또 한번의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남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다양한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재료비 지원과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마케팅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고
권리금도 없이 무상으로 월 4만원의 월세를 내고 창업을 시작했다"

이지영 대표는 현재 3곳에서 운영되는 빵집을 성심당 규모로
한곳으로 모으고 서울과 제주 등 전국 3개 지점을 내는 것이 꿈이다.
현재 23명의 직원과 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두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음으로 부딪히라"고 말하는 이지영 대표의
도전정신과 포부가 아름답다.

2024
자랑스러운 한남인 선정

한남대학교가 '2024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선정,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1월 22일 열린 '한남의 날 행사'에서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각각 200만원의 상금과 금배지가 수여됐다.



2024 자랑스러운 한남인

올해 수상자는

▲ 목회 · 선교분야
최남영 멕시코 티화나 한인교회
총회 파송 선교사(화학과)

▲ 언론분야
김지훈 대전MBC 보도국장
(언론홍보광고학과)

▲ 문화 · 출판분야
신동우 ㈜입시엔대표
(경영학과)

▲ 정치분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영어영문학과)

▲ 해외분야
박원용 ISEE Career Solutions, Inc.
대표(행정학과) 등이다.



최남영 멕시코 티화나 한인교회
총회 파송 선교사(화학과)

최남영 선교사는 지난 1997년 대전대덕교회 후원으로 총회 파송 멕시코 선교사로 27년간 봉사해왔다. 현지 교회를 개척해 해외동포 자녀 · 현지인들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을 비롯한 국경 지역의 난민을 돌보며 국제 난민 봉사를 해오고 있다. 중미 카리브지역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민간외교사절로 봉사하고 있으며, 한남대의 창학정신을 현지에서 실천하고 있다.



김지훈 대전MBC 보도국장
(언론홍보광고학과)

김지훈 대전 MBC보도국장은 1996년 대전MBC보도국 취재기자로 입사해 28년간 다양한 분야를 출입하며 지역사회문제 고발과 지역현안을 통찰력 있게 짚어내 지역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왔다. 2014년 취재부장, 2024년 보도국장에 취임해 한남대 동문으로 지역 언론의 공익성에 기여하고 있다. 원도심, 교육격차,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기획보도하고 다큐멘터리를 통한 항일 음악 발굴과 민주화 항쟁 등을 다뤄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기도 했다.



신동우 ㈜입시엔대표
(경영학과)

신동우 ㈜입시엔 대표는 대입전문 월간지를 비롯한 진로 및 진학분야 35권의 저서를 출간해왔으며, 대학 진학 관련 정보 제공 매거진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와 최대 저서를 보유하고 있다. 매거진 분야 콘텐츠 접속자 상위 10%, 나침반 36.5 월간지 시중 판매 1위, 전국 중 · 고교 3000곳 구독자 보유 등으로 모교와 동문을 빛내왔다.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영어영문학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9대 후반기 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행정을 이끌어 의회의 위상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자치법규 제도 정비, 지역주민의 정책 요구 반영 등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모교의 이름을 드높여 왔다. 조 의장은 한남대 ROTC 총동문회장이며, 대전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박원용 ISEE Career Solutions, Inc.
대표(행정학과)

박원용 ISEE Career Solutions, Inc. 대표는 북미주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해 오며 동문 간 유대강화와 교류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모교와 여러 연계 활동을 통해 미주사회에 한남대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오는 한편, 북미주 동문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에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공헌해 왔다.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며 북미주사회에서 한남대의 긍지를 높이고 여러 단체 리더로 활동해 왔다.

I HANNAM STORY 1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학생들, 미국 포드자동차 프로젝트 최종 '우승' 영예



한남대학교 디자인팩토리 학생들이 미국의 포드(Ford) 자동차가 진행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2024년 1학기에 진행된 글로벌 디자인씽킹 프로젝트(Global Design Thinking Project)에서 한남디자인팩토리 소속의 '포디(Fordy)팀(황채린, 송채연, 박하람, 김유미, 장민성, 김남경, 길혜준, 양지혜, 황수경)'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6개국 9개 디자인팩토리 소속 18팀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드자동차 회사에서 '포용적 이동성'이라는 주제를 제시했으며, 한남대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디자인팩토리 소속 교원의 지도와 글로벌 멘토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진행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각자의 전공 역량을 활용한 결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디팀은 인지 능력이 감퇴된 운전자의 운전 환경을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헤드 트랙킹(Head tracking) 기능과 위험 요소를 센서가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시제품을 제작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의 전면 유리창에 속력이나 진행 방향 등을 보여주는 장치이며, 한남디자인팩토리 학생들은 운전자의 시선에 따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함께 이동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스쿨존 등 다양한 위험 요소 정보를 실용적으로 담아내 호평을 받았다.



이번 글로벌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는 영국 브루넬대학의 런던 디자인팩토리, 영국 애스턴 대학 버밍엄디자인팩토리,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 맨체스터디자인팩토리, 미국 페이스대 뉴욕디자인펙토리, 이스라엘 쉔카르 대학교 쉔카르디자인팩토리 등이 참여했다. 포드사는 우승을 차지한 한남대 디자인팩토리의 시제품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과제로 추진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남 디자인팩토리는 지난해에 진행된 글로벌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교과목에서 협력회사로 참여한 영국 맥도널드의 해피밀 프로젝트에서 우승한 후,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 유금 센터장은 "글로벌비즈니스,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미디어영상, 융합디자인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 디자인팩토리의 디자인씽킹 교육 방법론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글로컬대학30사업본 지정에 도전하는 우리 대학도 이러한 교육 혁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잇따른 성과는 한남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 2등은 런던디자인팩토리, 3등은 연세대디자인팩토리가 각각 차지했다.

1.
2024년 1학기에 진행된 글로벌 디자인씽킹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남디자인팩토리 소속 '포디(Fordy)팀

2.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미지 사진

I HANNAM STORY 2

한류 홍보대사 한남대 한국학 프로그램 '인기'



세계무대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가 운영한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 Summer Program, KSSP)'이 높은 호응 가운데 마무리 됐다.

지난 7월 여름방학 중 3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은 미국 자매대학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중단 이후 5년만에 재개됐다.

한남대 미국 자매대학 베일러, 도르트, 프레스비테리안, 슈라이너,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Baylor University, Dordt University, Presbyterian College, Schreiner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sheville) 등 5개 대학에서 4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3주간 운영되는 한국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사회, 역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특강,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대북정책의 싱크탱크인 '데이비드 강(Dr. David K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와 한남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린튼의 증손자인 데이비드 린튼(David Linton J.D) 등 유명인의 특강과 사회, 역사,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특강이 진행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어 교육과 전주 · 부여 · 통영 · 거제 · DMZ 등 유명 역사 문화 탐방, 야구경기, 영화관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견학,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견학 등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매력을 흠뻑 느꼈다. 소중한 기회였다"며 입을 모았다.

캔디 캔(Dr. Candi Cann·Baylor Univ) 교수는 "한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특강과 흥미진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미 내년 프로그램에도 지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남대학교가 해외 자매대학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
한남대가 운영한 한국학 프로그램 (Korean Studies Summer Program, KSSP)이 높은 호응을 얻고 마무리 됐다.

2.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사회, 역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특강,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I HANNAM STORY 3

한남대 축구부, 또 한편의 '역사'

대학축구 최초로 2023년 4관왕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역사를 기록했던 한남대 축구부가 2024년 또 한번의 기록을 제조했다. 한남대 축구부는 대학축구 역사상 최초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지난 7월 15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제19회 백두대간기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호원대를 맞아 2대 0으로 무실점 승리를 차지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남대는 지난 2022년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같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4년 대회 시작 이후 19회 동안 아주대와 중앙대가 2연승을 차지했으며, 2개 리그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한남대가 백두대간기, 선문대가 태백산기 각각 2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대는 결승전까지 6경기에서 총 24골을 넣었으며, 경기당 4골의 다득점 공격축구를 선보였다.

8월 열린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에서도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학축구 명문의 저력을 확인시키는 자리였다.

한남대 축구부는 강원도 태백시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동아대를 맞아 결승에 올라온 동아대를 3대 0의 완벽한 스코어로 완파했다. 동아대는 지난 2002년 준우승 이후 22년 만에 결승에 오르며 거친 플레이로 투지를 불태웠으나, 한남대 특유의 빌드업 축구에 기세가 꺾였다.

한남대 박규선 감독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비롯해 멘탈훈련, 기술훈련까지 잘 따라와 줘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전을 보인 것 같다. 힘든 훈련을 잘 버텨준 선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기록을 갈아치우는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지난해 열린 5개 전국대회에서 대학 축구 역사상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2024년에도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3년 연속 우승과 추계대회 2년 연속 우승까지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다.





1. 2.
한남대 축구부는 2024년에도
연속 우승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다.

3.
'2024 제19회 백두대간기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에서 우승했다.

4.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에서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I HANNAM STORY 4

창업마켓 육성기업 다함께 차차茶 해외 시장서도 통했다.

한남대학교 창업마켓에서 육성한 재학생 창업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주인공은 한남대 창업존에 입주한 '차방'(업체명 다함께 차차茶)' 김재의 대표. 김 대표는 대전시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대전-상하이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수출 상담회에서 김 대표는 5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EA TIME

지난 2022년부터 한남대 창업존에 입주해 있는 '차방'의 학생 창업자 김재의 대표는 국산 수국 추출물인 '필로둘신'에서 단맛을 추출해 대체당을 개발하고, 차와 블랜딩 해 특허출원을 냈다.

무가당 홍차 밀크티 시럽 제품(티아름 제로 밀크티 베이스)으로 개발된 그의 제품은 중국 현지 구매기업(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고, 중국 기업인 'Shanghai Huiyujia Biotechnology Co., Ltd'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티 시럽 제품으로 개발된 그의 제품은 쓰고 떫은 차의 타닌 성분을 배합 기술을 활용해 달콤한 쓴맛으로 변신시켰다. 차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MZ세대를 포함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차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의 대표는 지난 2021년 한남대 창업동아리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남엔젤투자클럽의 투자를 받아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으며, 전국 갤러리아백화점과 온라인 갤러리아 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유성구 동네상점 입점 등 활발한 진출을 해왔다.

'다함께 차차茶' 기업은 '차방'이라는 상호로 한남대 창업존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단순히 차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페 개념이 아니다. 차방은 블랜딩 티 위주의 제품을 개발해 생산해 내는 한편, 티 클래스, 청년 대상의 창업 교육, 오프라인 매장 판매, 컨설팅까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점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의 대표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 시장에 '티아름'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차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남대는 캠퍼스 내에 창업마켓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마켓에서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I HANNAM STORY 5

찬양으로 청소년사역하는 한남대

2024 H&U 전국 청소년 찬양축제 개최

"우열을 가리는 경연대회이기보다는 부흥회에 참석한 느낌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수 있었어요. 다채로운 찬양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남대학교가 기획한 H&U(High-Teen and University) 전국 청소년 찬양축제는 말그대로 축제의 장이었다. 한남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창과 중창, 밴드, 듀엣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찬양팀을 모집했다. 전국의 초·중·고 찬양팀 38개 팀이 예선을 통과했으며 최종 본선에 11개 팀이 올랐다. 대상팀에게는 200만원의 상금, 최우수상팀 100만원,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등 총 500여만의 상금을 걸고 치열한 승부가 진행됐다.

한남대는 본선에 오른 찬양팀들을 대상으로 8월 29일 교내 성지관에서 찬양축제로 진행했다. 전국 각지의 찬양팀 또는 찬양 밴드팀, 댄스팀이 모여 그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겨루는 자리이지만 일반 경연대회와는 달리 경쟁이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다함께 즐기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마치 뜨거운 부흥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찬양축제에는 CCM 밴드로 알려진 '어쿠스틱머신'이 초대 가수로 참여해 수준 높은 찬양 공연을 펼쳤으며, 창단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남대 '실레스트' 합창단이 찬조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대상은 '산정고라니' 팀(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학생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온빛중창단', 우수상에 '글로리우스', 'YB 합창단' 2개 팀, 장려상에는 '천안중앙유스콰이어', '다움중창단', 'GIA' 3개 팀이 선정됐다. 뒤이어 감사상에는 '희망주', '누리다교회', '대파코', '마하나임' 등 4개 팀을 선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찬양축제는 사실상 경연대회라는 의미보다 본선에 참여한 11개 팀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코로나 이후로 열린 첫 찬양축제에 정말 많은 팀이 전국에서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라며,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더 다채로운 찬양축제로 부흥하도록 연중행사로 기획하여 한남대가 캠퍼스 청년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
한남대학교는 지난 29일 2024 H&U 전국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2. 3. 4.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다함께 즐기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마치 뜨거운 부흥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I HANNAM STORY 6

아동복지학과 양효경 학생, 화재현장서 기지 발휘한 '용감한 시민'

이승철 총장은 "화재 현장이 위험하다고 인지했음에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감한 기지를 발휘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행동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양효경 학생은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선행에 총장님과 시장님이 상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의롭고 어려운 주변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라도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저처럼 행동했을거에요.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을 구출한 양효경 학생은 대전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2. 3.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양효경 학생에게 총장 표창장과 총장특별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지난 8월 14일 새벽 3시 51분. 편의점 밤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2학년 양효경 학생은 유성구 관평동의 3층 주택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119에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다. 새벽시간인 만큼 건물 거주자가 잠이 들었을 것이라 판단했고, 양 씨는 건물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이 잠겨있었지만, 문을 두드려 잠들어있던 집주인과 2명의 시민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양 씨는 현장에 출동한 화재진압대원에게 화재현장을 안내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덕분에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했고,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을 구출한 양 씨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 같은 양씨의 선행은 언론 보도에도 보도됐으며,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양씨에게 총장 표창장과 총장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I HANNAM STORY 7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 세계적 국제 디자인 공모전 휩쓸어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각종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잇따라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국제 디자인어워드'에서 한남대 정재훈, 윤희건 학생은 난민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종이로 만든 책상인 'Self-Study Paper Desk'를 선보여 'Winner'상을 수상했다. 'IF국제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3년 시작된 역사 깊은 공모전으로 혁신적 디자인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대회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주차로봇 'Parkmate'를 디자인한 양승민, 조원혁, 정재훈, 윤희건, 김가빈 학생은 '유러피안 제품 디자인어워드'에서 'Winner' 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 역시 유럽에서 가장 권위있는 디자인상 중 하나로 혁신적이고 뛰어난 제품 디자인을 인정하고 시상하는 대회이다.

지난 7월에는 국제 4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스파크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이지은, 한수정 학생이 '버스 내 우산 보관 및 분실 예방 알림 도구'를 출품해 'Winner'를 수상했다. 이 대회는 '더 나은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통해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통을 추구하는 디자인대회로 유명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런던 디자인어워드'에서 한남대 김선희, 이승주, 추예송 학생들은 '평범한 용기에 이로움을 더한 화장품 용기'를 선보여 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매년 패션, 건축, 인테리어 분야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정하는 '미국 IDA 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 권도연, 이연지, 임민정 학생도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혁신적인 타일 디자인을 선보여 'Winner'를 수상했다.



1



2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황경찬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디자인 대회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1.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각자 수상 상장을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첫째줄 왼쪽부터 이지은, 이승주, 김선희, 추예송 학생
둘째줄 왼쪽부터 윤희건, 정재훈, 양승민, 조원혁 학생

2.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대회에 참여하여 선보인 작품들

I HANNAM STORY 8

'서울의 봄' 촬영장, 한남대 사범대학 (화이트기념관) 리모델링



영화 '서울의 봄' 촬영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남대 사범대학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한남대는 10월 22일 오후 1시 20분 사범대 잔디광장에서 준공기념식을 갖고 50여년만에 새롭게 단장한 사범대학을 선보였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로비, 복도, 계단 등 공용 시설 리모델링과 외부 도장공사를 비롯해 조명공사, 소방공사, 전열공사 등 전반의 설비공사도 마무리했다. 이밖에 정문 외형에 대형시계와 돔을 설치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화이트기념관이라고도불리는사범대는 지난 1978년 화이트 여사가 20만 달러의 학교발전기금을 기증해 이를 시드머니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자의 이름을 따 '화이트기념관'으로 명명됐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화이트 여사는 목사로 시무하다 소천한 아들을 기념해 한국에서 활동하던 남장로교 미첼 선교사를 통해 발전기금을 한남대에 기증하게 됐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사범대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된 교사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대전충청의 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꾸준히 선도해 왔다"라며 "사범대학은 상징성이 큰 건물인만큼 이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대 사범대학 잔디밭에서는 영화 '쎄시봉(2015)'을 촬영한바 있으며,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수도경비사령부로 사용돼 유명세를 치른바 있다.

